

전매광장

심명자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이사장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23년에 색동회를 설립하시면서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이다.’ 고 어필하셨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해야 민족의 장래를 위해 100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유유서를 미덕으로 알고, 어린 사람이 어른을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던 시대에 소파의 외침은 큰 물결을 이루었다. 그 덕분에 지금도 5월이 되면 어린이를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방정환이 그리운 요즘 아이들

올해도 지각 있는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 나눔’ 활동을 곳곳에서 전개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감사 편지 전하기, 조손(祖孫)이 함께하는 활동, 사제동행 마라톤 등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했다. 노는 것이 제일 좋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린이 날만큼은 마음껏 울려 퍼지고, 특별한 추억도 만들었을 것이다.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잠깐의 활동을 경험한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등에 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내몰린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려서부터 학습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경쟁구조 때문에 학습력을 높여야 하고, 표준 안에 들게 하는 것이 목표이자 가치가 된 지도 오래다.

학원 열풍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 ‘4세 고시’라 불리는 입학 전쟁까지 생겨났다. 강남의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7세 고시’를 넘어 이제는 만 3세부터 입학시험을 보는 추세다. 입학 테스트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테스트를 보기 위해 다른 ‘서브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많을 정도이다. 강남이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니 머지않아 지방에서도 유아 영어 입시 바람이 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최고의 길로만 이끌려질 때 아이들이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한다면 실패와 패배감에 놀려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까?

아이가 자라 자립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리기 위해 많은 덕목이 필요하다. 그중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끌고 관리하는 가치와 정서이며 이것은 어려서부터 길러져야 한다. 실패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회복 탄력성은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주춧돌이나 다름없다. 어릴 때부터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며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라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이는 앞으로 마주할 더 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어야 한다. 아직 배우는 과정이며,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며 개선하려는 의지가 끊임 없이 마음 안에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기 연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고루 길러진다면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다.

그림책 ‘실패왕’ (지은이 한걸음, 계수나무, 2023)에서 포포는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모두 개구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기능을 익히기 위해 연습을 할 때 포포는 혼자 다른 동물 흉내 내기에 열심이다. 원숭이처럼 매달리는 연습, 홍학처럼 외다리로 서는 연습, 독수리처럼 나는 연습을 하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추락하기도 한다. 결국 엄마에게 이끌려 다른 개구리처럼 연습을 하는 날, 모두 파리 잡는 것을 실패하지만 포포는 그동안 다른 동물들을 따라하던 실력으로 보란 듯이 파리를 잡는다. 포포의 행동이 무모해 보이지만 포포가 선택한 방법은 확립화된 학습 패턴이 아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연민과 자기효능감을 키워나가는 시간이다.

아이들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자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나무열의자, 1970)의 리빙스턴도 오늘 아침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에 머무는 종족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종족에서 추방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비행연습을 했다. 작하할 때 배가 파열될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며 결국 자기가 목표로 두었던 높은 비행을 이뤘다. 조나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스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스승은 단지 나는 기술뿐 아니라 삶의 철학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 조나단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갈매기 플레처를 만나 이끌어준다. 가르침을 다 받은 플레처 역시 조나단의 스승과 조나단이 그랬듯이 또 다른 갈매기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삶은 단순히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작은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포포나 리빙스턴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깊이 성찰하고, 끈기와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책과 씨름하는 일상의 되풀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어른들은 마음껏 놀 때 제일 신난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애완동물

가든 밤을 물어뜯었다. 아무리 울어도 보고픔에는 굶은살이 박히지 않았다. 노랑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집이 잡혔다 터지면서 마음의 살갓이 벗겨졌다.

노랑이의 울음소리를 지울 수 없어 결혼 후에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다. 애들이 아무리 졸라대도 들은 척도 안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이 된 딸과 아들의 간절한 바람 앞에서 무너졌다. 눈동자 외에는 온몸이 하얀 강아지, 스피츠를 키웠다. 이름이 ‘아이리’였다. 내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쌔읍’ 소리를 내면, 아이리는 앞발 하나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내 방의 출입을 허용했다. 사랑스런 지상의 표정은 모두 아이리의 네 발이 옮겨적었다. 아이리는 상처로 얼룩져 왜곡된 한낱의 얼굴을 물리쳐 주었다. 저녁의 상냥한 말투와 감정까지 아이리의 원뿔에서 오른뿔으로 건너갔다.

하루는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다. 그날 밤 목욕시키지 말라는 말을 깜박 잊고 아이리를 씻겼다. 걱정스러워 밤새 자주 일어나 살폈는데 새벽 5시경에 아이리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리의 네 발은 슬픔이 자라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차를 몰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새벽이라 문이 잠겨져 있었다. 수의사가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옆좌석에서 죽은 듯이 누

워 있던 아이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꼬리는 즐거운 상상으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삼백육십 도로 흔들 수 있다는 듯 살랑거렸다. 저 꼬리에는 어떤 기본 좋은 힘이 있어 말랑거리는 일상과 행복의 첫자리를 다시 끌고 왔다. 아이리가 살아났구나 싶어,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핸드폰을 들었다. 그 사이에 아이리는 그만 털썩 주저앉더니 숨을 거두었다. 죽음을 앞둔 아이리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세월이 흘러 노랑이와 아이리로 인한 슬픔이 열여섯 가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의 경계를 넘어 오더니 적막이라는 앞발을 내밀며 꼬리를 흔드는 외로움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외로움이라는 애완동물은 밤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졸졸졸 나만 따라다녔다. 그때부터 그 애완동물을 키웠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내 감정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잘도 자랐다. 밤이 되면 외로움의 네 발은 쓸쓸함이 다가오는 쪽으로 향해 놓고 내 곁에서 잤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그 애완동물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있었다. 오랫동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듯 달의 눈길이 따스했다. 내가 달의 애완동물이었을까. 달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어느새 달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 명령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3 대선으로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과 다름없다.

이는 5·18 기념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5·18 인식조사’ 결과 나타났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응답자의 67.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 5·18과 관련해 시급하게 규명해야 할 과제로 ‘5·18민주화운동은 패·왜곡·조작’이 33.9%로 가장 많았다. 지금도 일부 극우 세력들이 5·18에 대해 끊임없이 왜곡과 폄훼를 자행하고 있는 만큼 진실 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18 당시 발포경위와 책임(24.2%), 5·18 희생자의 암매장 의혹(15.1%)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5·18 진상 규명이 32.8%로 가장 높았고, 5·18 왜곡과 폄훼 방지(20.0%), 5·18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19.8%), 5·18 민주유공자의 예우·처우 개선(19.6%) 요구도 많았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부정축재 한 비자금 환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3.0%에 달했다.

5·18 국민 인식 지수는 72.9점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95.3%였다. 5·18에 대한 인지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꾸준히 높아나는 추세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인지 비율이 전년보다 14.8%나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1년간 5·18과 관련한 정보를 접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78.7%로 나타났는데 동영상 서비스의 매체 접촉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번 5·18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해질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불의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바란다.

기대감 커지는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던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대선을 계기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공공의료 확대가 포함된 때문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총사업비 1,951억 원을 투입해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 지상 4층, 350병상 내외 규모로 필수 의료 중심 20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23년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기재부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해도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해 연말까지 인구 분포·의료이용 및 공급현황, 지방의료원 설립·해산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필요 예산·재원조달 방법과 적정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조사해 설립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면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광주는 요양·한방병원 이 공급 병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적정 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인구 감소와 의료 수요의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세종시뿐이다.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더구나 공공의료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도 맞닿아 있는 복합적 국가전략에 해당한다.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필수 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에 공공의료 확대가 포함된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이 후보가 과거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다, 이번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명확히 밝혀 기대가 더욱 크다. 아울러 국회 소관 상임위원 기재위에서 ‘공공의료예타 면제 2법’도 심의를 하고 있다 하니, 하루빨리 광주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길 바란다.

사진 속 세상



드론 스마트 파종 시연

무인 자율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파종 시연 행사가 14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경관농업 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4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스마트 자율 트랙터와 AI 기반 임무 설계 드론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파종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